

이화여자대학교  
2020년도 2학기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 김사과론

도시의 세련된 유령들

국어국문학과  
17학번

# 목 차

## I. 서론

## II. 본론

1. 그 힙스터의 생활방식
2. 배설, 소비, 폭력
3. 천국과 사막, 비정하고 성스러운 도시
4. 무한 경쟁, 유동하는 개인

## III. 결론

1. 의의: 힙스터의 배설을 통해 도시 바깥을 고찰하다
2. 앞으로의 전망

## 참고문헌

## 자료 (선택사항)

## I. 서론

단편소설 「영이」(2005)가 창비 신인상으로 당선되면서 소설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김사과는, 초기작 『미나』와 『풀이 눅는다』에서부터 장편 『천국에서』와 단편집 『더 나쁜 쪽으로』에 이르기까지, 힙스터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바탕으로 출구 없는 현대 소비 사회의 모습과 신자유주의의 이상에 대한 실망 및 배신감을 꾸준히 그려 내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사회에 분노하는 수단으로 『미나』의 친구 살해, 『천국에서』의 테러 등 파괴적인 폭력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포스트신경향과 문학, 즉 빈궁, 폭력, 살인, 광기 등의 극단적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1920년대 초반의 신경향과문학(KA쪽F)의 확대 재생산하는 포스트리얼리즘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김사과는 이를 통해 뉴푸어와 프레카리아트 등의 새로운 계급 발생과 불평등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가 별로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체제는 계속해서 인간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래서 난 계속해서 이 체제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보려고 한다.

김사과, 「[창작노트] 소설가 김사과의 창작노트」, 194쪽

아나톨 칼레츠키가 『자본주의 4.0』에서 말하는 따뜻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 공생의 자본주의는 김사과 소설에서 자취를 찾아보기 힘들다. IMF 이후 정부와 시장이 절충된 사회 중심의 형태로 자본주의가 변모하면서 생산보다 분배에, 이익의 극대화보다 가치의 극대화에 사회 전체의 초점이 맞춰졌지만 김사과가 주목하는 것은 여전히 자본주의 3.0,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즉 자본이 끊임없이 ‘사이렌의 노래’로서 기능하며 인간을 노예화하고 감정을 물화시킨 다음 결과적으로 인격체 대신에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세계의 이면이다. 이러한 경향은 곧 속물의 출현과 연결된다. 곧 이들은 쾌락과 욕망만을 중시하는 이기적이고 비대한 자아를 가진 인정 욕망의 산물이다. 오로지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구별되는 인물 유형인 것이다.

그러나 김사과 소설의 인물들은 단순한 속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는 다 가질 거야. 필요하다고 해도 다 가질 거고 필요하지 않다고 해도 다 죽여 버릴 거야. 아무 것도 남겨 놓지 않겠어. 아깝잖아. 필요없다고 해도 다 가져야지.”<sup>1)</sup>라고 선언한다. 이들의 소비는, 계층을 구분 짓는 기제로 활용되는 고급 취향으로써의 문화 자본을 욕망하고 상류 계급으로 편입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기보다 출구 없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배설 행위에 한없이 가깝다. 결국 이러한 ‘최신판 속물들’이 지니게 되는 것은 낭만과 센티멘탈 따위가 아니다. 그들은 대신 분출되지 못한 분노를 지닌 채로, 황폐하고 절망적인 세계를 목도하게 된다.

이것은 새로운 계급인 뉴 푸어 및 프레카리아트의 출현과도 연결된다. 전통적인 노동 계급, 즉 프롤레타리아는 사회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승

1) 김사과, 『미나』, 창비, 2008, 303쪽.

진 경로가 보장되어 있고 노동 조합의 가입 대상이 되는... 등의,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었다. 그러나 프레카리아트는 동질감보다 단자화가 훨씬 크게 나타나는, 즉 신자유주의가 뺏속까지 침투한 21세기 노동 계급이다. 이들은 단결하지 못하고 단절된 채 개개인으로 떠돌 수밖에 없고, 이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명확한 실체를 지닌 자본가나 계급이 아닌 실체 없는 자본주의 사회 그 자체가 된다. 즉 실체 없고 불분명한 유동적 요소들과 그에 대한 불안이 김사과 소설의 인물들, 다시 말해 힙스터라는 집단을 형성하는 감정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김사과 소설의 전체적인 구조를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인 힙스터, 배설, 도시와 연결하면서 각각의 소설이 지닌 특징을 간략하게 비평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포스트모더니즘적 전망과 결부하여 해석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 II. 본론

### 1. 그 힙스터의 생활방식

#### ① 최신관 속물들

그렇다면 과연 힙스터란 무엇인가. 사실 최근에 들어서서 힙스터라는 말 자체가 "힙"한 것과는 다소 거리가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힙스터는 21세기적 계급의식을 충실히 공유하고 재생산하는 집단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태어나 뺏속 깊은 곳까지 자본주의의 원리를 취득한 노동자인 이들은 생산보다 소비에 중점을 두고, 문화 자본을 획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다시 말해서, 힙스터라는 개념은 일종의 '아비투스', 후천적으로 체화되는 성향의 구조이면서 계급과 지위를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한 취향의 총체로 기능한다. 이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속물"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즉 힙스터가 '힙해지는' 지점은 힙스터가 영위하고자 하는 취향이 주류를 벗어난다는 점에 있다. 이들은 "민감하고 까다로운 취향을 가졌으며 전 생애에 걸쳐 자본주의에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뺏속 깊어 소비주의적"<sup>2)</sup>이지만 동시에 유동하는 액체 사회, 몰락하는 중산층의 가장 첨단에 선 세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류에 저항하는 정치 의식을 지니면서도 이에 대해 저항하는 방식으로 소비, 즉 취향을 택한다. 요컨대 이들은 자신을 온전한 주체로 아로새길 유의미한 상징계적 맥락을 잃어버린 채 상상적으로 주어진 기호만 소비하며 의미의 의미화 자체를 거부하는, 최신관 포스트휴먼이라 할 수 있다.<sup>3)</sup> 이들은 그리하여, "깨달음 대신 냉소주의로 도피한다."<sup>4)</sup>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소시민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똑같이 취급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안락한 소시민의 세계에서 탈락할까 봐 조마조마해했다. 그 소시민적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취향을 선택했다. 마치 속물들이 아파트와 자동차의 브랜드로 서로를 재듯이, 그들은 세련된 것들의 목록을 끝도 없이 늘리며 자신들을 방어하는 한편 또한 벗어날 수 없는 자신들의 출신 계급을 통해 무해한 공격을 시도했다. 촌스

2) 김사과, 『천국에서』, 창비, 2013, 91쪽.

3) 윤재민, 「[평론] 힙스터의 정치학 : 그녀에게 쇼파르를 허(許)하라」, 『창작과비평』 40권/1호, 창비, 2016, 523쪽.

4) 위의 책, 95쪽.

럽고 돈밖에 모르는, 하지만 그렇다고 부자가 될 재능도 용기도 없는 소심한 사람들의 세계. (...)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속한 그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꾸거나 박차고 나올 용기도 없었다. 그리하여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구석으로, 더 구석으로 숨어드는 것뿐이었다.

김사과, 『천국에서』, 144-145쪽

## ② 그들이 ‘쿨’해지는 이유

이들은 결국 냉소주의의 허울을 두른 채로 비주류의 취향을 향유하고, 동시에 ”아는 척하기, 아닌 척하기, 주류에서 벗어난 대안문화, 냉소, 실없음, 쿨함“<sup>5)</sup>을 추종한다.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데, 주류에 저항하고 본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선택한 비주류 취향이 결국 ‘힙스터틱한’ 공통 취향을 가진 계층 내에서 반복되어 소비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소비가 결국은 모두를 보다 더 비슷하게 만들고 마는, 개별성 무화의 차원에 맞닿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바깥을 상상할 수 없이 틀어막힌 이 세계에서 생존을 영위하는 방식이 공동체의 호의나 거대한 질서가 아니라 개인의 역량에 의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 구획되어 있다는 것에 그 근원을 둔다. 그들이 ‘쿨’해지는 이유는, 시니컬한 태도에 의해 유지되는 환상을 포기하는 순간 ‘천국’ 밖으로 굴러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속물을 경멸하면서 물질적인 것이 아닌, 그러나 한없이 뻗어갈 수밖에 없는 취향을 수집하는 식으로, 그들은 모든 것이 갖춰진 세계에서 나름의 변혁을 좇으려는 의미 없는 시도를 반복한다. 힙스터들이 조롱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하다. 주류에 반발하는 문화가 ‘취향’이 되면서, 그것은 전위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상품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항 정신은 진열대에 올려져 보기 좋은 트로피가 되고, 비슷비슷한 취향의 일환으로 소비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힙스터적 하위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과 결합하며 그 시너지를 증폭한다. 이제 사람들은 대량 소비에서 자신의 미적 취향을 소비하는 문화적 소비로 그 경향을 바꾸었으며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 사이의 경계가 해체되고 예술은 상업화되었다. 취향의 미학을 결정하는 것은 상품으로서의 가치, 즉 그것의 가격이지만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천박한 것으로 규정된다. 여기서 일종의 은폐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힙스터적 취향을 향유할 수 있는 계층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가진 중산층과 상당수의 교집합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의 현실 인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힙스터는 얼터너티브 뮤직, 독립영화, 음악을 좋아하고, 유기농 음식을 먹으며 로컬 맥주를 마시고, 라디오를 즐겨 듣고 자전거를 타는 중산층 혹은 상류층의 젊은이로 흔히 묘사된다“<sup>6)</sup>는 표현은, 힙스터라 불리는 이 새로운 계층이 어느 정도의 문화 자본을 확보하고 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김사과가 제시하는 힙스터의 모습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하위 문화를 고유의 문화 자체로 받아들이는 향유자라기보다 미국의 문화 형태를 한국의 사정에 맞추어 변형한 K-힙스터에 더욱 가깝다. 이들의 자기 인식은 실제 현실에 비해 상당히 암울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한국이 특히 계층에

5) 경인일보, 힙스터 의미 1940년 재즈광 비속어 시작... 노력하지 않은 멋 추구, 2020.11.16. 접속 <http://www.kyeongin.com/main/view.쪽h쪽?key=784408>.

6) 배지에·김양희, 「한국 힙스터(Hi쪽ster) 문화와 패션의 표현특성」, 『복식』 68권/8호, 한국복식학회, 2019, 45쪽.

대한 자기 인식이 상당히 하향되어 일어나는 경향을 띠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터인데<sup>7)</sup>, 15년도 기준으로 행해진 설문에서 고소득층의 49.1%가 본인을 빈곤층에 해당한다고 답했으며 자신이 고소득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9%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상당히 명료하면서도 불편하게 입증한다. 다시 말해 힙스터들은, 특히 K-힙스터들은 기실 몰락한 중산층에 속해 있으나 자신의 몰락에 취해 그들의 특권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끊임없이 ‘쿨한’ 것을 동경한다. 힙스터들의 이와 같은 모습, 혹은 다른 계층과의 괴리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천국에서』를 통해 형상화되는 인물의 모습, 그리고 갈등이다.

사실 그들은 혜택받은 부류였다. 그것은 일종의 세대적 특성이기도 했으며 따라서 넓게 봤을 때 케이도 그 그룹에 속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상대적 격차가 있었고, 화려한 걸모습과 정반대의 실상을 가진 집도 많았다. 케이의 집이 바로 그랬다. 그동안 이어져온 부동산 가격의 상승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서울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끝이었다.

김사과, 『천국에서』, 128쪽

이것 봐, 넌 이해 못해. 망했던 적? 그니까 지금은 안 망했다는 거 아냐. 있잖아 경희야, 난 망해본 적이 없어. 망하는 게 뭔지 몰라. 왜냐면 처음부터 망했거든. 난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쪽 이런 상태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런 느낌 알아? 계속, 계속, 계속, 좇갈을 거라는 느낌. 빠져 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거 너 모르잖아.

김사과, 『천국에서』, 282쪽

『천국에서』는 소비 사회에서의 세계 전망을 써머, 덴, 케이와 지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까지 포함해 세심히 다루는 소설이며, 이 과정에서 뉴욕과 서울, 잠실과 인천 등의 지리적 위계가 나타난다는 점 또한 특이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용한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뉴욕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지니고 힙스터적 정체성을 유지하며 비주류 문화에 대한 탐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는 “케이”의 현실 인식과 이에 대비되는 “지원”의 발언이다. “케이”의 인식을 현실적 특권과 괴리시키는 것은 그녀의 시각을 더욱 높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다른 요소들, 다시 말해 “진짜 완전 잘사는 애들<sup>8)</sup> 혹은 뉴욕에 거주하고 있는” 써머“다. 이것은 실질적인 빈곤층이자 문화 자본에 투자할 여유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원’의 말을 통해 제법 날카로운 단어와 함께 직접적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케이는 이러한 지적을 즉각 반박한다. “저는 솔직히 명품에도 관심 없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적당히 소박하게 살고 싶어요.”<sup>9)</sup>라는 욕망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스스로 인지할 수 없으나, 불행하게도 케이에게는 여전히 비교 대상으로써 상류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힙스터들은 중산층 내부에서의 위태로운 지위와 객관적으로 누리는 특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하는 존재로, 그들의 ‘쿨함’은 어느 정도 이러한 모순에서 눈을 돌리고자 하는 노력에서

7) 경향신문, 고소득층 2명 중 1명 “나는 빈곤층입니다”, 2020.11.16.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122921414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12292141465).

8) 김사과, 『천국에서』, 창비, 2013, 243쪽.

9) 김사과, 『천국에서』, 창비, 2013., 243쪽.

기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진실로 존재를 증명받기 위해 취향을 소비해야만 하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 힙스터들은 고급 문화에 속하는 취향을 자발적으로 거부하고 하위 문화에 대한 탐구를 계속해 나가지만 이들의 태생이 배태한 문화 자본이 미치는 영향 때문에, 또 문화 간의 위계가 해체되기 시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흐름 때문에 이러한 노력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다시 말해 냉소주의로의 도피조차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힙스터들 앞에 필연적으로 놓이게 되고, 이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고민한다.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들은 더더욱 자발적으로 ‘쿨함’을 포기할 수 없다.

## 2. 배설, 소비, 폭력

이나는 흥하게 꺾인 할머니의 왼손을 상자 안으로 깊숙이 쑤셔넣었다. 이나는 그 손이 너무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번에 또 누군가를 죽일 일이 생기면 흥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 말고도, 다른 모든 첫번째로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들처럼, 이나 또한 압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수많은 미숙하고 감정적인 흔적들을 남겼다.

김사과, 「이나의 좁고 긴 방」, 『02』, 74쪽

예를 들어서. 모두가 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친구를 짓밟고 올라서라. 숨이 막혀온다. 이런 건 다 비유잖아? 아무런 힘도 없이. 나는 진짜가 필요했어. 예를 들어서. 나는 니 손을 밟아 으스러뜨렸어.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진짜 밟는 거랑 비유적으로 밟는 거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는 알았어. 차이가 없어. 이것 봐. 아무런 느낌도 없어. 이렇게 니가 죽었는데도 나는 아무 느낌도 안 나. 죽어 있는 너는 살아 있는 너보다 더욱더 안 느껴져. 그리고 그건 아주 잘된 일이다.

김사과, 『미나』, 308쪽

김사과 소설의 인물은 끊임없이 소비하고 서로에게 폭력을 가하며, 이것은 자본주의의 모습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출구도 형체도 없이 모호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본주의적 사회 구조에서 “적“은 올바르게 형상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개인적인 복수 내지는 본능적인 반항, 살인, 방화 등의 우발적인 폭력에 그치고 마는 신경향파적 결말을 낸다. 그들은 열등감에 못 이겨 친구를 살해하거나(『미나』), 서로의 살을 찢고 뼈를 부수며(『테러의 시』), 우발적으로 할머니를 죽이고(「이나의 좁고 긴 방」), 부모를 죽이고(「영이」) 더 나아가서는(중심 인물은 아닐지라도) 총격 사건을 일으키기도 한다(『천국에서』). 이것은 결국 감정의 배설이며, 소화되지 못한 욕망의 발현이다. 부자와 빈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빈익빈 부익부의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상대적 빈자의 칼끝은(형체를 알 수 없이 모호하게 존재하는) 부자가 아닌 엉뚱한 곳을 향하고 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사과의 소설에서 폭력은 구조 그 자체를 겨냥한 반란이 아닌 “엉뚱한 자를 향한“ 배설로서의 역할을 한다. 출구를 잃은 채로 가열되어 부풀어오른 욕망(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은, 주변의 모든 것이 분노를 유발한다는

명목 아래 주위의 모든 것을 제거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용된 두 부분에서, 각각 ”이나“와 ”수정“은 체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다시 말해서 이들의 배설은 안정성을 향한 욕망의 부산물이다. 「이나의 좁고 긴 방」에서, 이나는 자신이 꿈꾸는 라이프스타일을 그럴 줄 알고 더 나아가 실천할 수도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가진 것과 먹는 것에 이어서 그녀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할 때 언급하는 것은 꽤 구체적인 패션 스타일이며, 이것은 구별 짓기로서 패션 등을 활용하는 힙스터의 특성과 연결된다. 수정의 경우, ”허영심“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된다. 외국의 언어와 생활 습관을 지니고 독자적인 라이프스타일을 형성하는 그들, 즉 야망을 가지고 시류에 편승하며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기 위해서 통증을 마비시키고 괴로움을 망각“<sup>10)</sup>하고자 하는 인간들은 P시를 지탱하며 구현하는 요소 그 자체이며 그 꼭대기, 즉 힙스터적인 생활양식의 끝에 바로 수정이 존재한다. 수정이 승리할 거라고 작품은 말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질식된 채로”<sup>11)</sup> 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이나와 수정의 폭력이 배설된 기저에는 세계의 불안정성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들은 현재의 불안을 잇는 방식으로, 내지는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타자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를 불사한다.

그는 진정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그는 육 년 전 셋째 고모가 생일선물로 사준 너털너털한, 로고마저 지워지고 바닥이 뜯어지기 일보직전인 리복 운동화를 신고 왔던 것이다. 그것은 마땅히 다른 신발이 없어서이기도 했고 또 미처 신발까지 신경을 써야 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김사과, 「박승준씨의 경우」, 『더 나쁜 쪽으로』, 117쪽

여기에 더해, 소비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정치적인 급진성을 본인의 취향- 소비 기호의 연장에서 표출하는 힙스터의 소비 문화 그 자체도 배설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배설“인 이유는 그들이 어떤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하거나 변화의 의지를 보이려고 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취향과 태도를 오로지 소비만 하고, 어떤 말도 하지 않는 ‘쿨’하기 짝이 없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향유하는 취향과 태도에 대해 말하기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힙스터 문화에 내재한 ‘배설’의 행태를 추동하는 근본 메커니즘이다.“<sup>12)</sup> 그리고 배설로서 끊임없이 상품을 소비함에 따라, 힙스터들의 취향 또한 끊임없이 소진된다. ”영원한 건 취향이 아닌 취향과 공허의 굴레, 다시 말해 상품과 싫증의 반복이다.“<sup>13)</sup> 영원한 건, 결국 섭취와 배설의 끝없는 굴레에 속해 있는 셈이다. 인용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힙스터’들이 가난을 타자적으로 소모하는 방식이다. 우연히 쓰레기장에서 디올 양복을 얻게 된 이후 김민영이라는 여자를 만나 힙스터들의 모임에 끼어들게 된 박승준 씨는, 운동화와 복장의 언밸런스함을 깨닫고 곤경에 처하지만 걱정과 달리 그것은 의도된 페스티시로 해석되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타 계층의 현실, 즉 가난과 같은 불행조차 조금 독특한 것으로 기호화되어 소비되는 사회를 축약하는 행태라고 볼 수 있으며 김사과 소설에서 힙스터들의 현실 인식이 점점 더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볼 수 있겠다. 이후의 김사과 소설에서, 힙스터적 면모를 보이는

10) 김사과, 『미나』, 창비, 2008, 86쪽.

11) 위의 책, 88쪽.

12) 윤재민, 「[평론] 힙스터의 정치학 : 그녀에게 쇼파르를 허하라」, 『창작과비평』 40권/1호, 창비, 2012, 528쪽.

13) 최윤정, 「[평론] 보급형 선악과 베어먹기」, 『창작과비평』 44권/1호, 창비, 2016, 564쪽.

인물들은 보다 고도로 자본에 귀속되어 괴물로서 타자화되면서 상징계 질서가 가진 한계를 시험하는 역할로 주로 등장한다.

김사과 소설의 인물들이 행동하는 방식, 즉 폭력과 소비 두 가지가 모두 실제 없이 모호한 자본주의 사회,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그 경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는 투명한 무언가에 대한 불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는 불안의 배설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것은 생존이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린 현실에 기초하는 현상이다.

하지만 난 꼭 참고 씹어삼켰다. 견뎌내었다. 견뎌내는 것이라면 익숙하다. 삶이란 견뎌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삶에 대해 매우 이상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건 삶을 견딘다는 견해이다. 하지만 도대체 누가 이런 고통을 즐길 수 있단 말인가. 단지 견딜 수 있을 뿐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 살아남고 싶다. 누구보다도 끝까지.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죽는 것을 보고 싶다. 바로 내 눈으로 보고 싶다. 천천히 혹은 빠르게, 쉽게 혹은 힘들게 죽는 것을 보고 싶다.

김사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오늘은 참으로 신기한 날이다」, 『02』, 218쪽

다시 말해서 김사과의 인물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다. 그보다는 생존하여 체제에 완벽히 편승하고 그 안에서 안정성을 획득하고자 하는 욕망, 내지는 타자를 배제하고 유일한 주체로서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취향의 소비를 통해 완전히 소화되지 못한 욕망은 불시에 배설되며 그 폭력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세계가 인물에게 가하는 폭력, 내지는 기약의 지연이 빚어낸 결과다. 결과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에 의해서, 다시 말해 존재를 위협당하는 행위에 대한 공포로부터 배설은 출발하는데, 이러한 배설이 출구 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향한 불안감 내지는 불안감을 주는 대상을 파괴하고자 하는 욕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사과가 진정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폭력을 수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인물을 폭력과 배설, 소비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세계 그 자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의 모습은 어떤 형태로 작품 안에 구현되어 있는가?

### 3. 천국과 사막, 비정하고 성스러운 도시

그래, 거기는 천국이었어. 그런데 여자는 울어. 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여기는 천국이야. 근데 왜 나는 울고 있냐고? 나 이제 그 여자를 이해할 수가 있어. 그 여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야. 여기는 천국이야. 그런데 왜 나는 울지? 이걸 결국 같은 얘기야. 모든 게 망가졌는데, 왜 아무것도 무너져내리지 않아? 왜 다 무너져내렸는데 아무것도 끝장나지 않지? 왜 끝장이 났는데,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냐고?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여기가 천국이라. 근데 천국이 잘못되었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너야. 행복해하지 않는 너라고. 슬

퍼하고, 화가 나는, 이 천국을 부수고 싶어하는 너야. 이 천국을 의심하는 너야.

김사과, 『천국에서』, 336쪽

탈출 불가능한 세계의 모습은 도시의 형태로 김사과의 작품들에 주로 구현된다. 가령 『미나』의 P시, 이 폭력적인 힙스터들이 제대로 된 발화(發話) 대신 폭력적인 욕망 표현의 수단으로, 그리고 무기력한 비주류의 소비를 통한 취향의 소진 행위로서 배설을 택하게 된 계기는 기본적으로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도시가 철저하게 ‘Winner Only’라는 팻말이 세워져 있는 ‘성공 인증소’이기 때문이다.

성공자만이 허용되는 도시는 표면적으로 지나치게 완벽하며, 끊임없이 상품대에 상품들이 진열되며 새로운 자리를 차지하는 소비주의의 천국이다. 즉 모든 것이 갖춰진 완벽한 세계로서 도시는 일종의 유토피아, 자본의 메카와도 같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의미화되지 않고 모든 것이 부유하는 먼지처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세계의 불안 속에서, 천국으로 보였던 도시는 실상 희망도 목적도 출구도 없이 찰나의 쾌락을 통해 삶의 경험과 의미마저 물질화시키는 황폐한 곳에 불과할 뿐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사막과 구분되지 않는다.”<sup>14)</sup>

찰나의 유희를 제공하는 상품과 물질이 도시를 풍요롭게 할수록 그 안에 존재하며 소비되는 인간의 내면은 황폐화된다. 즉, “그들은 날이 갈수록 풍요로워지는 쇼윈도와 반대로 끝없이 얇아해지고 투명해진다. 외부가 없는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된 것은 내면이 결여된, 셀로판지처럼 얇고 투명한 인간이다. 다시 말해 상품 진열대로서의 인간.”<sup>15)</sup>만이 존재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도시는 그 안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하지 않을 때는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시가 제공하는 자유란 결국 인공적인 자유, 체제의 원리를 강제하고 그 절대성을 벗어나려고 시도할 때 즉시 제재를 가하는 시혜적이고 기만적인 환상에 불과한 것이다.

실체 없고 모호한 상상 속의 ‘천국’, 도시에서는 끊임없는 개발과 끊임없는 소비가 계속되며, 이 도시 안에서 유토피아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이를 혐오하는 힙스터들은 최초의 탈출구로서 ‘특별해지는 것’을, 즉 비주류의 취향을 선택하는 것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천국’을 움직이는 자본의, “자본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 자본에 반하는 것 상관없이 모조리 자본화시키는 무한한 포용력’ 때문에 이러한 시도는 결국 누군가와 달라지기 위해 똑같은 것을 소비하는 기호 가치로서, 허상을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전락할 뿐이다. 그들의 쿨한 태도는 결과적으로 예정된 실패를 위한 도움단기로 전락한다.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잠재해 있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자본이라는 공통된 이름으로 획일화되는 동시에 자본이라는 공통된 이름하에 세분화”<sup>13)</sup>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소비하는 도시는 인간의 개성을 죽이고 획일화하며 바깥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소비주의적인 차원에서 성스럽다. 결국 자본이라는 허상, 견고한 체제는 획일화된 구역과 똑같은 거리, 쇼윈도에 상품이 진열된 진열대가 존재하는 실재계의 “사막”인 서울, 뉴욕 내지는 추상화된 도시인 쪽시 등으로 구체화되며 그 도시에 속한 인간이 영원히 완성되지 않을 지도 안에서 길을 잃도록 만드는 주범인 것이다. 동시에 뉴욕과 서울 등으로 형상화되는 도시의 모습은, 세계화된 범주의 자본주의를 보여 주면서 다시 한번 출구 없는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쁜 쪽으로」에서, “착란 속의 피난민들. 거대한 황무지 늪에 도착하여 자신들이 낙원에 도착했음

14) 김사과, 『테러의 시』, 민음사, 2012, 9쪽.

15) 김사과, 『0 이하의 날들』, 창비, 2016, 116쪽.

을 확신한다.”<sup>16)</sup>는 서술 이전에 길게 나열된 일련의 취향은 이러한 도시에 저항하기 위해 계속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힙스터들의 노력이 결국은 무위로 돌아가며, 이들이 도시에 삼켜지거나 어딘가에서 해소되지 못한 욕망을 기어코 배설하고 말리라는 예언의 일종처럼 보이기도 한다.

텅 빈 거리, 잠에 빠진 상점들의 쇼윈도에 내 모습이 비친다. 하지만 비치는 저 형상은 내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인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여기는 어디인가. 내가 알던 거리는, 내가 알던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가. 아아, 기억난다. 그들은 높으로 향했다. 그뒤는 모른다. 저기 같은 방향을 향해 걷는 저자들을 더 이상 모른다.

김사과, 「더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32쪽

어떤 면에서 도시의 힙스터들을 연결하는 것은 프레카리아트적 성질이다. 프레카리아트란 극도로 유연화된 노동 시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로, 전통적인 노동 계급이었던 프롤레타리아와는 또 다른 계급적 특성을 가지는 노동자 계층이다. 이들의 고용 관계는 완전히 유동적이며, 하청을 거듭해 이루어지는 탓에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데다 해고 과정 또한 전통적인 고용 방식에 비해 훨씬 용이하다. 이러한 특성 탓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함께 할 동료를 모으는 데 난항을 겪으며,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게 된다. 여기에 더해 프레카리아트들은 확실히 실업 내지는 취업,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태가 확실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 모호한 경계에 놓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노미(Anomie)와 분노(Anger), 불안(Anxiety)과 소외(Alination)로 충칭되는 4A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김사과 소설 속 구현된 도시를 살아가는 인물, 더 나아가 체제에 편입되고자 하는 욕망과 자아가 지니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인 보호 장치가 부재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실제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로 인간은 끊임없이 불확신과 불안정에 기반한 공포를 느끼게 되고, 이것은 현재 위치, 자기 자신을 사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위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공포는 자기 착취에 가까운 자기계발을 통해 끊임없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잉여적인 존재라고 재현되는 사람들'과 차별성을 두는 데 주력하게 만든다. 그래야만, 나'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sup>17)</sup>

다시 말해 극도로 '유연화된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세계를 파편화함으로써 상류층의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인간을 잠재적인 프레카리아트 상태에 놓이게 한다. 힙스터는 하위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즉 기성 세대에 저항하는 취향의 향유와 소비를 통해 이러한 불안정을 양산하는 체제에 저항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저항 또한 결과적으로는 자본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다. 힙스터와 프레카리아트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양산하는 불확실성의 결과로서 둘 다 제대로 된 배출구를 찾지 못해 욕망을 배설하는 식으로 기능할 여지가 있으며 도시 내부를 유령처럼 떠돌게 된다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다시 말해 몰락한 중산층으로서 점점 프레카리아트화되고 있는 청년의 자화상이 힙스터라는 취향의 향유 형태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18)</sup> 이것은 자유를 슬로건으로 내건 도시에 의해 은폐되

16) 김사과, 「더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28쪽.

17) 장봄·천주희, 「안녕! 청년 프레카리아트」, 『문화과학』 78호, 문화과학사, 2014, 66쪽.

18) 이것은 『천국에서』의 지원처럼 본래 중산층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의 좌절과는 다소 궤가 다른데, 문

고, 모든 것은 결국 도시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도시는 자아를 과편화시켜 개인을 몰개성의 불안에 떨게 하는 신자유주의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없는 거대한 미로인 것이다. 김사과의 인물들은 광기와 폭력을 통해 출구를 모색하고자 하지만, 이 배설의 근원에 불안이 도사리는 탓에 다소 난항을 겪는다.

### III. 결론

#### 1. 의의: 힙스터의 배설을 통해 도시 바깥을 고찰하다

김사과는 결론적으로 현대 자본주의에 새로 출현한 계급인 뉴 푸어와 프레카리아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생산보다 소비를, 물질보다 취향에 우선 순위를 두는 “아비투스”로서 공유되는 힙스터들을 끊임없이 유동하며 과편화, 단자화된 사회에서는 자본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불안에 기반하여 표출되는 배설 행위로서 형상화시켰고, 이 행위들이 추상적인 자본주의 사회가 구체적으로 실재로서 나타나는 공간인 서울과 뉴욕 등 “도시”의 탈출 불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이 세계의 불평등을 더욱 명료하게 드러내고 자본 바깥 세계를 탐색하는 것의 난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곧 작가가 체제에 제기하는 질문이고, 체제 바깥에 있을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김사과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이상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체제가 부추기는 과편화가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적나라한 폭력을 통해 보여 주면서도 그 안에서 어떻게 대안을 모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작가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2. 앞으로의 전망

『천국에서』의 결말이 수족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과 함께 여름, 즉 씨머와 함께 했던 기억을 버린다는 제법 희망찬 전개로 끝난 이후 김사과의 관심은 힙스터적인 정체성을 가진 중산층에서 그러한 중산층, 더 나아가 세계를 착취하고 자신의 양분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본가에게로 옮겨간 듯하다. 이러한 자본가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쉽게 홀리는 매력, 즉 사이렌의 유혹적인 노래이다. 이들 자본가들은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살해하는 것을 떠나, 포식하는 동물로서 인간을 바라본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불안에서 유래하는 분노가 없으며, 오히려 공허하고 우아한 느낌을 준다. 이제 김사과는 타인의 인정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 인간, 다시 말해 주체성이 완전히 제거된 괴물과 같은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포스트휴먼이 탄생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sup>19)</sup> 이러한 자본가들, 즉 『N.E.W』의 정지용이나 『0 영 ZERO 靈』의 주인공 또는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의 한비 같은 인물들은 지극히 포스트모던의 정신분열적인 특징,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적 연쇄에서 벗어나 하나의 역사적인 힘이나 깊이감이 상실된 채로, 다시 말해 역사 의식이 부재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들이 스스로의 자아에 표하는 도취감 또한 이러한 특징과 궤를 함께한다. 이들에게 세계는 환각적 에너지로 반짝이며, 문화 영역까지도 완전히 자본에 포함되며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마는 순수한 자본주의의 총체로 기능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

화 자본의 축적과 계층의 사다리로 여겨졌던 교육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문화 자본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계급 상승 대신 하강하는 미래만이 존재하는 청년의 불안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19) 강동호, 「포스트-휴먼-노블」, 『문학과사회』 31권/4호, 문학과지성사, 2018, 198쪽.

속물, 내지는 힙스터로서의 자아마저도 상실한 알팍한 인간으로서 오로지 다른 사람을 식인하는 것에만 열을 올린다. 이를 두고 내레이터로써 김사과는 소설의 서두에 간결하게 덧붙인다. “바야흐로 포스트모던한 세계 속에 성공적으로 첫발을 디딘 것이다.” 20)

김사과 소설을 이해하는 데 전반적인 키워드가 되는 세계화와 자본에 대한 우려는 이제 세계를 향한 파괴 욕구를 넘어서 깊이가 없기 때문에 권태로운 영역에까지 그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 『더 나쁜 쪽으로』 이후의 김사과는 영어와 한글 내지는 시와 소설의 혼용을 통해 장르의 순수성을 의도로 붕괴하며 혼종성과 잡종성을 보여 주면서 포스트모더니즘적으로 소설을 창작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러한 인물들의 등장과 관심사의 이동도 이러한 활동의 일환일 것이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예술의 상업화, 그리고 시각의 우위를 다루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결부된 김사과의 '도시'에서도 잘게 해체되어 분리된 인류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고, 이러한 분리의 징후는 도래한 질병과 결부하여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 추측한다. 김사과가 그리던 벗어날 수 없는 소비 사회의 천국은 이제 세련된 유명들이 알팍한 겉옷을 입고 떠도는 권태로운 도시에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 김사과가 세계를 조망하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것인지, 혹은 유지될 것인지 기대해 본다. 이러한 세상에서 기존의 힙스터적 자아는 살아남기 위해 어떤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될까.

---

20) 김사과, 『N.E.W.』, 문학과지성사, 2018, 13쪽.

## 참고문헌 (10개 이상)

### 1차 자료

- 김사과, 『02』, 창비, 2007, 188-226쪽.
- 김사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오늘은 참으로 신기한 날이다」, 『02』, 창비, 2007, 188-226쪽.
- 김사과, 「이나의 좁고 긴 방」, 『02』, 창비, 2007, 68-92쪽.
- 김사과, 『미나』, 창비, 2008.
- 김사과, 『풀이 눕는다』, 문학동네, 2009.
- 김사과, 『테러의 시』, 민음사, 2012.
- 김사과, 『0 이하의 날들』, 창비, 2012.
- 김사과, 『천국에서』, 창비, 2013.
- 김사과, 『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 김사과, 「더 나쁜 쪽으로」, 『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13-32쪽.
- 김사과, 「박승준씨의 경우」, 『더 나쁜 쪽으로』, 문학동네, 2017, 101-119쪽.
- 김사과, 『천국에서』, 창비, 2013.
- 김사과, 『N.E.W』, 문학과지성사, 2018.
- 김사과, 「예술가와 그의 보헤미안 친구」, 『자음과모음』 41권, 자음과모음, 2019, 160-180쪽.
- 김사과, 『0 영 ZERO 靈』, 작가정신, 2019.

### 2차 자료

- 강동호, 「포스트-휴먼-노블」, 『문학과사회』 31권/4호, 문학과지성사, 2018,

192-204쪽.

강지희, 「저기 무서운 아해가 거울을 본다」, 『창작과비평』 39권/1호, 창비, 2011, 423-425쪽.

김사과. 「[창작노트] 소설가 김사과의 창작노트」, 『오늘의 문예비평』, 산지니, 2009, 191-194쪽.

김형중, 「'탈승화' 혹은 원한의 글쓰기」, 『문학과사회』 26권/1호, 문학과지성사, 2013, 366-384쪽.

박진, 「포스트IMF 시대, 문학의 욕망과 욕망의 윤리」, 『작가세계』 23권/1호, 세계사, 2011, 257-271쪽.

배지예·김양희 (2019), 「한국 힙스터(Hi쪽ster) 문화와 패션의 표현특성」, 『복식』 68권/8호, 한국복식학회, 45쪽.

오창은·정여울, 「김사과 스타일, 무모함인가 새로움인가」, 『창작과비평』 36권/2호, 창비, 2008, 404-410쪽.

윤재민, 「[평론] 힙스터의 정치학 : 그녀에게 쇼파르를 허(許)하라」, 『창작과비평』 40권/1호, 창비, 2012, 522-538쪽.

장봄·천주희, 「안녕! 청년 프레카리아트」. 『문화과학』 78호, 문화과학사, 2014, 57-72쪽.

최윤정, 「[평론] 보급형 선악과 베어먹기」, 『창작과비평』 44권/1호, 창비, 2016, 551-565쪽.

키어런 앨런·김준효·차승일, 「프레카리아트 : 새로운 계급인가 허구적 개념인가?」, 『마르크스21』 14권, 책갈피, 2014, 268-293쪽.

경인일보, 힙스터 의미 1940년 재즈광 비속어서 시작... 노력하지 않은 멋 추구, 2020.11.16. 접속 <http://www.kyeongin.com/main/view.쪽h쪽?key=784408>

경향신문, 고소득층 2명 중 1명 “나는 빈곤층입니다”, 2020.11.16. 접속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1229214146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512292141465)